

21세기 수출포장 선두기업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품질 개선 통해 업계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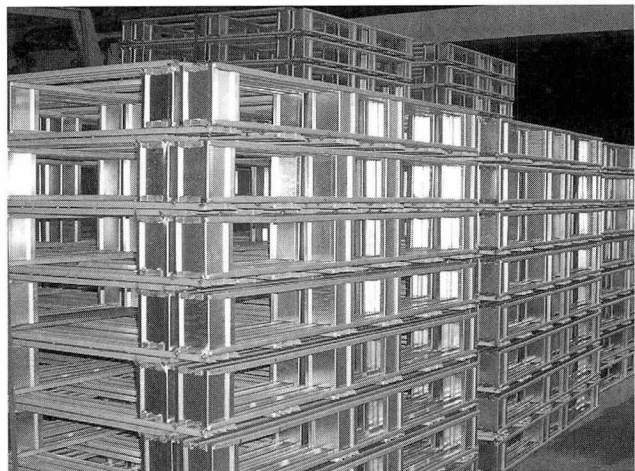
최 은 수

(주)산호수출포장 대표이사

매년 국내 경제계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을 화두로 내걸고 있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은 300만개 이상으로 전체 근로자의 90%인 1천100여만명이 근무하는 우리경제의 주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국가적 차원의 중소기업 육성책도 미비할 뿐더러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 중에는 글로벌 마인드로 무장,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등 신뢰 경영을 중심으로 대기업 부럽지 않은 업체들이 “중소기업의 힘”을 자랑하고 있다.

〈이코노미플러스〉와 한국기업데이터가 공동으로 선정한 ‘2005 한국의 중소제조기업 22개 업종별 베스트 10’의 220개 기업들 가운데,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스틸 파렛트



▲ 경남 창원에 위치한 (주)산호수출포장

부문 5위를 차지한 (주)산호수출포장은 수출용 목재 상자 업체로 지난 20년간 꾸준히 성장 발전, 중량물포장 업계 대표로 자리매김하며 발전해 왔다.

중소기업의 힘이자 수출포장업계의 파워를 자랑하고 있는 (주)산호수출포장(대표이사 최은수)을 찾았다.

목상자, 나무파렛트, 철상자, 철판파렛트 제조 수출포장 전문 업체인 (주)산호수출포장은 1985년 4월 설립 이래, 수출포장 제조의 외길을 걸어 왔다.

경남 창원 공단 내 본사 및

2·3공장을 함안 칠서에는 철재사업부(2500평)를 두고 발전하고 있는 산호는 목상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본사에는 제재시설(월 30만才 직수입 원목 가공 가능) 및 목재 열처리시설(월 12,000才 처리 가능)을 갖추고 철상자 및 철판파렛트를 전문으로 하는 스틸(STEEL)사업부에서는 철재 절단·편칭 부분의 최신식 설비인 자동화 설비기계 및 도장부스 등 종합 설비시설을 고루 갖추어 수출포장의 전문화에 앞장서고 있다.

산호수출포장의 2세 경영인인 최은수 사장.

“대표이사 취임 당시 ‘대물림’이라는 일각의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는 그는 “경영권 승계 이후, 그 누구보다도 투명 경영을 실천하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꾸는데 성공했다.

특히 올해 3월에는 “성실납세자 표창”을 수상하면서 기업의 이익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최후에는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경영 방침을 실현하며 임직원들의 높은 신임을 받고 있다.

2005년 당시 110억원의 매

SAN HO

출액을 달성한 (주)산호수출 포장은 직원들의 대부분이 포장전문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설계 및 제조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춘 경력자들이 부지기수다. 따라서 산호의 노하우와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되는 포장박스들은 고객의 제품을 보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밑바탕이 되고 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환경문제와 자원고갈 등의 이유

를 내세워 목재포장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더욱이 강화된 환경규제는 일부 국가에서 목재 포장박스의 열처리를 문제 삼아 통과를 제기하고 나서 각 수출업체나 포장업계는 철재를 이용한 포장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아래 (주)산호수출포장도 기존의 나무를 사용한 목재포장의 한계를 느끼고 목재 기술만으로는 기업 경쟁

력이 향상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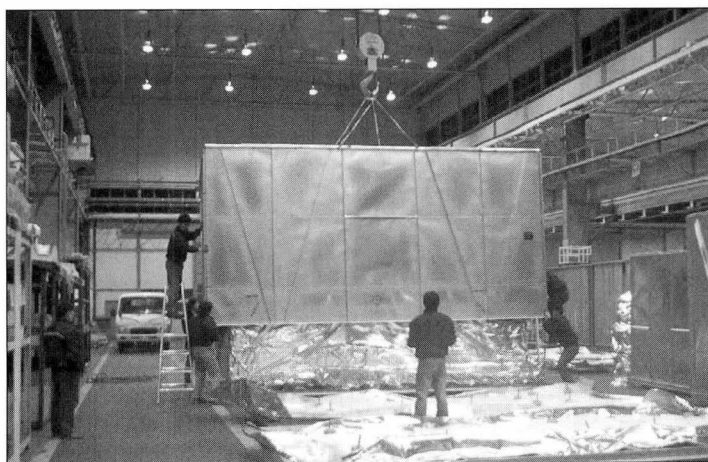
지난 2006년 2월, 함안군 칠원면 유원리에 Steel 사업부를 신설한 산호는 철재 소재를 이용해 지속적인 기술 개발에 주력한 결과, 현재 스틸 박스(Steel box) 관련 2개의 특허와 스틸 파렛트(Steel pallet) 관련 1개의 특허·2개의 실용신안을 획득했다.

또한 지난 7월 초에는 Steel 파렛트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여 사업 경쟁력을 한층 발전시키고 있다.

이처럼 목재사업부와 스틸(STEEL) 사업부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주)산호수출포장은 목재포장과 스틸(STEEL) 포장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각각의 포장법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포장 박스를 공급함으로써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 함안공장 작업 공정



▲ 스틸 포장 공정

최은수 사장은 “수출포장업체의 경우 타 직종들과는 달리 다소 힘들다는 인식이 핸디캡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한다.

“참신한 경영전략으로 끊임 없는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고품격·고품질을 바탕으로 살아있는 신용을 기업전통으로 삼아 수출산업의 믿음직한 동반자 역할을 충실하게 지켜내겠다”는 그의 경영방침에 적극 협조해주고 있는 직원들에게 한없는 고마움을 느낀다는 최 사장은 인력을 양성하는 일이 업계 발전의 주축이라는 판단 아래 학자금 제도 및 유아출산보조금 등의 복지정책을 운영하고 작

업환경을 개선하는 등 수출포장업체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직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아래, 지속적인 안전 환경 개선을 실천한 결과 2006년 2월에는 “무재해 1500일” 달성을 하였으며 현재에도 “무재해 3000일” 달성을 위해 전 직원들이 최선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국내 수출포장의 대부분은 원재료가 나무인데 반해 대부분은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판매처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입요구량을 수용해주기 보다는 대량

의 물량을 요구하는 중국 쪽으로 물량을 공급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최은수 사장은 “부대비용 증가로 국내로 들어오는 나무의 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이는 수출포장 회사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하면서 “단체나 정부 차원에서 원재료의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올해 산호수출포장은 “YES, 넘버원 3C운동! 변화(Change), 경쟁(Competition), 고객중시(Customer)”로 대변되는 산호의 경영혁신운동을 통해 수출포장업체를 선도할 포부를 갖고 있는 한편, ERP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기업의 체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 환경에서 앞서 나가기 위한 제품을 생산하며, 수출포장 세계1위 기업으로 우뚝 서겠다는 “세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수출산업의 교두보”(주)산호수출포장의 발전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ko]

박초혜 기자